Darius Milhaud (1892–1974)

- La création du monde
  - □□
- Le bœuf sur le toit
  - □□
- Suite provençale, Op. 152d
  - □□
- Saudades do Brasil
  - □□

La création du monde

정보

개요
곡명: La création du monde, Op. 81a
작곡가: Darius Milhaud (1892–1974)
장르: 단막 발레 음악
작곡 시기: 1922–1923년
초연: 1923년 10월 25일 Paris Théâtre des Champs-Élysées, Ballets suédois, Vladimir Golschmann 지휘
대본 ·무대: Blaise Cendrars 대본, Jean Börlin 안무, Fernand Léger 무대 ·의상
성격: 아프리카 창조 신화의 발레 서사를 알토 색소폰, 피아노, 복합 타악군과 소규모 현악이 맡는 재즈풍 실내 앙상블로 구현한 작품

IMSLP: La création du monde, Op. 81a

Wikipedia: La création du monde

Darius Milhaud의 La création du monde, Op. 81a는 Blaise Cendrars의 창조 신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단막 발레 전곡이다. 이 발레는 1923년 Ballets suédois 초연을 위해 마련된 실내 앙상블용 원작이며, 음악은 Ouverture에서 출발해 Le chaos avant la création, La naissance de la flore et de la faune, La naissance de l'homme et de la femme, Le désir, Le printemps ou l'apaisement 순으로 여섯 구간을 연속해 이어 간다. 알토 색소폰과 피아노, 한 명이 맡는 복합 타악군, 비올라가 빠진 현악 편성이 재즈의 리듬과 프랑스식 대위법을 창조의 무대 서사에 결합한다.

발레의 제작과 작품 범위

Milhaud는 Ballets suédois의 의뢰를 받아 Cendrars가 쓴 창조 이야기의 시나리오에 음악을 붙였다.
무대에서는 세 창조 신이 혼돈 속에서 식물과 동물을 불러내고, 남자와 여자가 나타나 욕망과 결합의 춤을 거친 뒤 봄과 평온의 상태에 이른다. Jean Börlin의 안무와 Fernand Léger의 무대 ·의상은 이 연속적인 변화를
시각적 움직임과 기하학적 형태로 조직했다.

작품은 성악을 사용하지 않으며, 여섯 구간이 별도 악장처럼 끊기기보다 하나의 단막 발레 호흡을 만든다. BnF 와 IRCAM은 작곡 연도를 1923년으로 적고, IMSLP와 원자료는 1922–1923년으로 제시한다. 작곡 시기는 1922–1923년으로, 완성 ·초연은 1923년으로 기록된다.

출판 정보와 판본

초기 출판은 두 매체로 나뉜다. Max Eschig는 1923년에 4손 피아노판을 냈고, 관현악 총보는 1929년에 같은 출판사에서 나왔다. BnF에는 Paul Collaer와 Roger Désormière에 대한 헌사와 함께 이 서지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Op. 81a는 발레 전곡을 가리킨다. 같은 작품번호의 4손 피아노판은 전곡의 축약 매체이고, Op. 81b로 불리는 피아노 5중주용 모음곡은 별도 편곡 ·작품이므로 두 범위를 합쳐 세지 않는다. 연주회에서 무대 없이 들을 때에도 기준은 발레 전곡의 여섯 구간이며, 피아노 축약판과 Op. 81b 모음곡은 별도 범위로 남는다.

소요 시간

전곡은 약 15–16분이다. IMSLP와 IRCAM은 약 15분, Los Angeles Philharmonic은 16분으로 제시하며, 연결된 여섯 구간의 빠르기와 반복 여부에 따라 실제 시간은 달라진다.

편성

작품의 실내 앙상블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플루트 2(한 명은 피콜로 겸임), 오보에, 클라리넷 2, 바순, 알토 색소폰
호른, 트럼펫 2, 트롬본
피아노
팀파니 5, 복합 타악기 1명: 심벌즈, 드럼 세트, 금속 블록, 작은북, 테너드럼, tabor, 탬버린,
우드블록과 큰북 계열 악기
바이올린 2, 첼로, 더블베이스

비올라는 편성에 들어가지 않는다. 복합 타악기 주자는 한 파트 안에서 여러 북과 금속 타악기를 바꾸어 연주하며, 팀파니 다섯 대가 발레의 무게를 보탠다. 자료에 따라 이 앙상블을 17명의 개별 연주자 또는 18개 악기로 세는 차이가 있다. 이는 복합 타악기를 묶는 방식에 따른 표기 차이이며, 세부 악기 목록은 같은 핵심 편성을 보여 준다.

여섯 구간의 연속적 진행

1. Ouverture: Modéré

알토 색소폰과 관악이 어둡고 정적인 선율을 열어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세계를 암시한다. Los Angeles Philharmonic은 이 도입을 재즈 프렐류드로 설명하며, 색소폰 주제가 작품의 첫 음색과 리듬 감각을 동시에 제시한다고 해설한다.

2. Le chaos avant la création

더블베이스와 낮은 음역이 앞 구간의 선율을 이어 받아 혼돈의 공간을 만든다. 느린 움직임 속에서 재즈풍
화성과 대위적 진행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며, 뒤에서 나타날 생명의 증식을 위한 시간적 여백을 마련한다.

3. La naissance de la flore et de la faune

식물과 동물이 차례로 생겨나는 장면에서는 짧은 선율과 리듬이 서로 겹친다. 오보에의 명상적인 선율, 현과 피아노가 만드는 춤, 관악기의 응답이 한 덩어리로 고정되지 않고 이어지면서 생명이 늘어나는 과정을 음악의 결합으로 들려준다.

4. La naissance de l'homme et de la femme. Vif

남자와 여자가 등장하면 음악의 운동이 더욱 빠르고 선명한 춤으로 바뀐다. Vif의 추진력은 앞선 창조의 재료를 인간의 몸짓으로 옮기며, 관악과 타악의 짧은 제스처가 빠른 몸짓을 강조한다.

5. Le désir

두 인물의 끌림과 결합을 다루는 구간이다. 피아노, 타악기, 관악기와 짧은 현악 선율이 촘촘한 리듬을 만들고, 반복과 겹침이 욕망의 에너지를 무대의 움직임으로 확장한다. Brussels Philharmonic은 이 대목의 블루스
음형과 재즈 리듬이 장식적 인용이 아니라 전체 진행을 조직하는 재료라고 설명한다.

6. Le printemps ou l'apaisement

마지막 구간은 앞선 혼돈과 욕망의 에너지를 가라앉히는 짧은 서정적 코다다. 오보에 선율과 부드러워진 현악 · 피아노의 움직임이 봄과 평온의 이미지를 만들며, LA Phil은 이 선율에서 블루스와 Milhaud의 프로방스 목가 음악이 만나는 색채를 듣는다. 창조의 서사는 이 완화된 호흡에서 닫힌다.

재즈와 대위법의 결합

Milhaud의 재즈 경험은 한 번의 여행 일화가 아니라 이 작품의 편성과 진행을 결정한 작곡 배경이다. 그는 1920년 London에서 미국 재즈 밴드의 연주를 들은 뒤, 1922–1923년 New York와 Harlem의 클럽 ·
댄스홀에서 경험을 넓혔다. Brussels Philharmonic은 이 접촉을 Billy Arnold's Novelty Jazz Band와 여러 Harlem 공연장의 기억으로 설명한다. 파리로 돌아온 Milhaud는 색소폰, 피아노, 복합 타악기, 관악과 짧은 현악을 묶어 그 음향을 Ballets suédois의 무대에 맞게 다시 구성했다.

대위법은 도입과 혼돈에서 재즈 프렐류드와 푸가의 방식으로 나타나고, 이후에는 반복과 겹침을 통해 창조 과정의 증식을 연결한다. LA Phil이 설명하듯 짧은 선율이 차례로 나타나고 겹쳐지는 방식이 생명의 출현을 음악적으로 나타낸다. 관악과 현악의 선율이 피아노와 타악의 박동 위에 겹치면서, 재즈의 시간감과 프랑스식 대위법이 하나의 실내 앙상블 안에서 동시에 작동한다.

무대 서사와 1920년대 파리의 시선

Cendrars는 자신의 L'Anthologie Nègre에 실린 창조 이야기를 Ballets suédois의 단막 무대에 맞춰 재구성한 시나리오를 제공했다. Léger는 아프리카 가면과 흙빛을 연상시키는 색채를 입체파적 형태와 결합했고, Börlin의 안무는 식물 ·동물 ·인간의 출현을 연속적인 신체 움직임으로 만들었다.

이 무대의 재즈와 아프리카 이미지는 1920년대 Paris의 예술적 실험과 이국주의적 시선 안에서 형성되었다 . 따라서 La création du monde는 유럽 현대음악이 재즈를 구조의 재료로 받아들인 사례이면서 , Cendrars와 Léger가 아프리카 창조 신화를 파리의 무대 언어로 옮긴 문화적 표상이기도 하다. 작품의 음악적 추진력과
무대의 문화적 시선은 같은 제작 맥락에서 함께 드러난다.

초연 ·수용과 녹음

1923년 10월 25일 Théâtre des Champs-Élysées에서 열린 초연은 Ballets suédois의 제작으로 이루어졌고 , Vladimir Golschmann이 지휘했다. Brussels Philharmonic은 당시 오케스트라를 17명의 개별 연주자로
설명하며 알토 색소폰의 존재를 중심적인 음향 특징으로 꼽는다. 초연 직후에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으나, 이후 점차 재평가되어 작품은 레퍼토리에 남았다.

DariusMilhaud.com의 음반 기록에는 Milhaud가 지휘한 1932년 녹음, Charles Munch와 Boston Symphony Orchestra의 녹음, Arthur Weisberg와 Contemporary Chamber Ensemble의 녹음이 비교 대상으로 실려 있다. 이 기록은 작곡가 자신의 지휘를 담은 초기 녹음과 대형 교향악단 ·실내 앙상블이 남긴
녹음 사례를 한 자리에서 보여 준다. 녹음마다 색소폰 ·피아노 ·타악기와 소규모 현악의 균형을 다르게 제시하며, 작곡가 지휘 ·대형 교향악단 ·실내 앙상블이라는 서로 다른 연주 조건을 비교하게 한다.

주요 자료

Los Angeles Philharmonic, La création du monde 작품 해설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La création du monde 서지 기록

IRCAM, La Création du monde 작품 데이터베이스

Brussels Philharmonic, Creation of Life 프로그램 노트

DariusMilhaud.com, La création du monde 발레 ·녹음 기록

Le bœuf sur le toit

정보

개요

항목	내용
작곡가	Darius Milhaud (1892–1974)
작품명	*Le bœuf sur le toit*, Op. 58
장르	단악장 ballet-pantomime(무언극 발레)
작곡	1919년
초연	1920년 2월 21일 Paris Comédie des Champs-Élysées, Vladimir Golschmann 지휘
무대 구상	Jean Cocteau의 시나리오 , Raoul Dufy의 무대미술
음악적 재료	Milhaud의 자작 후렴과 최소 28개의 브라질 대중음악 주제

IMSLP: Le bœuf sur le toit, Op. 58

Wikipedia: Le Bœuf sur le toit

Milhaud의 *Le bœuf sur le toit*는 1919년에 쓴 단악장 무대음악으로 , 처음에는 Chaplin식 무성영화에 붙일 `Cinéma-Symphonie` 구상에서 출발했다 . Jean Cocteau가 이를 1920년의 ballet-pantomime으로 바꾸면서 , 음악은 빠른 후렴과 브라질 도시음악 인용을 무대의 희극적 소동과 결합하게 되었다 . 작품 전체는 공식 악장으로 나뉘지 않으며 , 하나의 후렴이 여러 에피소드 사이를 반복해 돌아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창작과 무대화

Milhaud는 1917년 Rio de Janeiro에서 Paul Claudel의 외교 업무를 보좌하면서 삼바 , maxixe, tango brasileiro, choro 계열의 도시음악을 접했다 . Philharmonie de Paris는 제목이 José Monteiro의 maxixe `O boi no telhado`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한다 . Milhaud가 Ernesto Nazareth와 Marcelo Tupinamba의 곡을 피아노로 연주하며 익힌 선율 기억은 이 작품의 실제 인용 재료가 되었다 .

초기 구상은 빠르고 명랑한 15분 안팎의 영화용 음악이었다 . Cocteau는 이 음악에 미국 금주법 시대의 bar를 연상시키는 공간 , 바텐더와 손님 , 경찰관 , 권투 선수와 서커스적 인물을 배치했다 . BnF의 공연 기록은 Cocteau의 farce, Raoul Dufy의 무대미술 , G. P. Fauconnet의 의상 , Fratellini 형제의 출연을 함께 적는다 . 음악의 속도와 판토마임의 느린 몸짓이 서로 다른 시간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 무대 구상의 중요한 조건이다 .

1920년 2월 21일 Paris의 Comédie des Champs-Élysées에서 Vladimir Golschmann이 지휘한 초연은 이 음악과 무대 구상이 결합한 첫 공연이었다 . 이후 작품은 발레, 판토마임, 관현악 환상곡이라는 여러 이름으로 소개되었지만 , 현재 연주회에서는 대개 무대 동작 없이 관현악 단악장으로 연주된다.

출판과 판본

피아노 네 손판은 1920년에 Éditions de la Sirène에서 출판되었다. 관현악판은 이후 Max Eschig와 Eschig 계열로 전승되며, Durand-Salabert-Eschig 카탈로그는 관현악판 ME 6562와 피아노 네 손판 ME 8255를 제시한다. 자료에 따라 관현악판의 연도와 초판 표기가 달라지며, 정확한 서지 정보는 사용하는 총보의 판본 기록에 제시된다.

소요 시간

관현악판은 대체로 약 1519분이다. LA Philharmonic은 약 15분, Philharmonie de Paris와 Durand-Salabert-Eschig는 약 1719분을 제시한다. 무대판에서는 판토마임, 장면 전환과 출연진의 움직임이 추가되어 체감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음악만 연주하는 경우와 공연 전체의 시간을 구분한다.

편성

관현악판은 플루트 2(제 2는 피콜로 겸함), 오보에 1, B-flat 클라리넷 2, 바순 1, 호른 2, C조 트럼펫 2, 트롬본 1, 타악기와 현악기로 구성된다. 타악기에는 귀로, 탬버린, 큰북, 심벌즈가 포함되며, 카탈로그에 따라 한 명 또는 두 명의 연주자로 배치한다. 편성 목록은 판본과 프로그램의 요약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겸주와 타악기 수는 사용하는 총보의 파트 표기에 따라 달라진다.

단악장 형식과 음악적 재료

후렴과 에피소드

Philharmonie de Paris의 해설은 Milhaud가 만든 자작 선율이 작품 전체를 묶는 후렴으로 돌아오고, 그 사이에 최소 28개의 실제 브라질 주제가 삽입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브라질성은 막연한 분위기가 아니라 선율의 출처와 인용 방식에 자리한다. 후렴이 돌아올 때마다 주변 악기와 조성 영역이 달라지면서 , 같은 표지가 새로운 무대 상황으로 이동한다.

다조성과 리듬의 결합

여러 선율은 서로 다른 조성 영역에 겹쳐 놓이며, 배경 화성보다 선율의 충돌 자체를 전면에 드러낸다. 빠른 춤 리듬과 반복되는 후렴은 음악을 계속 앞으로 밀어가고, 무대에서는 그 속도와 어긋나는 느린 몸짓이 희극적 긴장을 만든다. 이러한 다조성적 배치는 인용된 선율을 하나의 민속 모음으로 정리하기보다 , 도시의 소음과 가면극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장면으로 묶는다.

종결과 무대의 소동

후렴과 에피소드가 거듭 교대하면서 경찰관의 등장과 술집의 소동이 무언극의 마지막으로 수렴한다. Cocteau 의 시나리오에서는 bar가 우유만 파는 가게로 위장되고, 서커스적 출연진과 초현실적 사건이 이어진다. 관현악 연주에서는 이 구체적인 동작이 생략되지만 , 반복 구조와 급격한 선율 교대가 사건의 순서를 암시한다.

영화 구상, 무대판과 연주회판

Cinéma-Symphonie 라는 초기 발상은 화면의 빠른 장면 전환을 상정했지만 , Cocteau가 붙인 대사 없는 무대 동작은 음악의 속도와 신체의 속도를 분리했다. BnF와 Cocteau 자료가 전하는 bar, 가면, 경찰관과 서커스의 요소는 이 음악이 특정한 줄거리를 노래하는 오페라보다 시각적 행동을 위한 리듬 장치에 가깝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연주회판에서는 장면의 소품과 배우가 사라지고, Milhaud가 만든 후렴과 브라질 선율 인용의 배치가 곡의 진행을 직접 맡는다. LA Philharmonic은 작은 목관 ·금관과 타악기 편성, 약 15분의 길이를 제시하며, 이 음악이 대편성의 색채보다 선율과 리듬의 선명한 교대에 의존한다고 설명한다. 무대의 역사와 관현악판의
청취 범위는 서로 연결되지만 , 두 공연 형태의 시간과 시각적 정보는 동일하지 않다.

주요 자료

Durand-Salabert-Eschig, Darius Milhaud 작품 목록
Philharmonie de Paris, Le Bœuf sur le toit 프로그램
Philharmonie de Paris, 추가 공연 자료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1920년 공연 서지
Los Angeles Philharmonic, Le bœuf sur le toit IRCAM, Le bœuf sur le toit
Jean Cocteau 자료, La farce du bœuf sur le toit

Suite provençale, Op. 152d

정보

Darius Milhaud: *Suite provençale*, Op. 152d

개요

- 작곡가 : Darius Milhaud (1892–1974)
- 작품명 : *Suite provençale*, Op. 152d
- 버전 : 발레판과 연결된 모음곡 . 관현악판은 여러 자료에서 Op. 152c로 구분된다
- 장르 : 관현악 모음곡 및 발레 음악
- 작곡 시기 : 1936년
- 바탕이 된 극음악 : Bertran de Born 관련 Orange 공연 음악 , 일부 자료는 Bertrand de Borne으로 표기
- 관현악판 공연 : 1937년 9월 12일 , 베네치아 비엔날레 , Milhaud 지휘
- 발레판 공연 : 1938년 2월 1일 , Paris Opéra-Comique, Roger Désormière 지휘
- 초판 서지 : 1937년 R. Deiss/Salabert, RD7533
- 공식 구성 : 여덟 부분
- 연주 시간 : 약 15–16분

출판 정보와 자료

Durand-Salabert-Eschig와 IRCAM은 관현악판을 Op. 152c, 발레판을 Op. 152d로 나누어 기록한다 . DSE 카탈로그는 1937년 베네치아 비엔날레의 관현악판 공연과 1938년 파리 Opéra-Comique의 발레판 공연을 각각 적고 , 출판자를 Salabert(Deiss), 번호를 RD7533으로 제시한다 . IMSLP와 nkoda는 1937년 R. Deiss/Salabert 악보와 68쪽 총보를 연결하지만 , CiNii는 같은 작품을 66쪽의 Op. 152d 관현악용으로 적는다 . 이 차이는 판본과 서지 기술의 충돌로 남긴다 .

- IMSLP: *Suite provençale*, Op. 152c
- Wikipedia: *Suite provençale*

다리우스 미요의 Suite provençale은 1936년 Orange의 Bertran de Born 관련 극음악에서 나온 여러
버전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작품 표기의 Op. 152d는 발레판을 가리키지만 , 관현악판의 초연과 편성은 Op. 152c로 기록한 기관 자료가 더 분명하다. 직접 확인한 자료는 다섯 악장이 아니라 여덟 부분을 제시하며, Animé, Très modéré, Modéré, Vif, Modéré, Vif, Lent, Vif의 템포 순서를 따른다. 이 글은 두 번호의 관계를 먼저 구분한 뒤, 여덟 부분의 제목과 리듬, 1937년 베네치아 공연과 1938년 파리 발레 공연을 함께 설명한다.

소요 시간

IRCAM과 DSE는 두 버전 모두 약 16분으로 안내한다. Naxos의 Casadesus·Lille 녹음은 15분 14초이며, 1957년 Milhaud 지휘 녹음과 Charles Munch·Boston Symphony Orchestra의 음반도 트랙 편집에 따라 15 분대에서 16분대까지 달라진다. 그러므로 약 15–16분은 기관 자료와 실제 음반을 함께 반영한 범위다.

편성

IRCAM과 DSE가 제시하는 관현악 편성은 다음과 같다.

목관악기: 플루트 2, 오보에 3, 클라리넷 2, 바순 2
금관악기: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3, 튜바
타악기: 팀파니, 드럼 키트 또는 두 타악기 파트
현악기

Flaminio의 확장 목록은 오보에 2와 잉글리시 호른, 바소 튜바를 따로 적는다. 이 표기가 제 3오보에의
대체인지 추가 악기인지는 총보와 파트를 직접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확정하지 않는다. 드럼 키트와 두 타악기라는 표기도 자료에 따라 다르므로, 편성의 공통 핵심만 고정한다.

버전과 작곡의 출발점
미요는 1936년 5월과 6월 파리에서 극음악을 썼고, Flaminio 자료는 8월 2일 Orange의 Théâtre Romain 공연을 그 출발점으로 설명한다. 작품의 문학적 바탕은 Valmy-Baisse가 관여한 Bertran de Born 관련 무대물로 표기되며, 철자는 자료에 따라 Bertrand de Borne으로 달라진다. University of Florida 학위논문과 DSE 카탈로그는 같은 극음악에서 관현악 모음곡, 발레판, 그리고 별도의 성악곡 Trois Chansons de troubadour, Op. 152b가 파생되었다고 설명한다.

관현악판 Op. 152c는 1937년 9월 12일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미요가 지휘한 공연으로 기록된다. DSE와 여러 기관은 이날을 공통으로 제시하지만 , Flaminio는 Teatro alla Fenice를, 검색으로만 확인된 축제
프로그램 전사는 Teatro Goldoni를 적는다. 따라서 공연 날짜와 작곡가 지휘는 비교적 확실하게 적고, 정확한 장소와 연주 단체는 자료 충돌로 남긴다.

발레판 Op. 152d는 DSE와 Musicologie가 1938년 2월 1일 Paris Opéra-Comique에서 Roger Désormière 의 지휘로 공연되었다고 기록한다. IRCAM도 1938년 2월 파리와 Désormière를 확인하지만 , 발레단과 안무가 , 당시 사용한 세부 악보는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

여덟 부분의 구성

여덟 부분의 제목은 Colorado State University 프로그램과 여러 음반 목록에서 확인된다. IRCAM의 발레 페이지처럼 일부 자료가 *Pêcheurs*를 빠뜨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아래 목록은 제목과 템포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I. *Guardians* · *Animé*

첫 부분은 짧은 템포 지시와 강한 리듬으로 모음곡의 외부 세계를 연다. 대학 프로그램은 행진이나 팡파르에 가까운 시작과 상·하 금관의 대비를 분석한다. 이 설명은 프로그램 작성자의 청취 해석이지만, 플루트와 금관, 타악기가 짧은 동기를 주고받으며 전체의 활기를 정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II. *Cueillette des amandes* · *Très modéré*

두 번째 부분은 첫 부분의 추진을 가라앉히고 더 느린 템포에서 목관과 현의 선율을 드러낸다. 제목은 아몬드 수확을 뜻하며, 발레판의 장면 제목으로 전승된다. 관현악판에서는 이 장면의 구체적인 동작보다 짧은 선율과 음색의 대비가 중심이 된다. Naxos 음반에서 이 부분은 1분 30초 안팎으로 제시된다.

III. *Joueurs de boules* · *Modéré*

세 번째 부분은 공놀이 장면을 가리키는 제목과 중간 템포가 결합한다. 미요는 짧은 동기와 비대칭적 악센트를 목관, 현, 타악기에 나누어 놓는다. The Guardian과 Classical-Music의 비평은 이러한 부분 전환이 색채를 빠르게 바꾼다고 설명하지만, 특정 악기가 특정 인물을 고정적으로 상징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IV. *Pêcheurs* · *Vif*

*Pêcheurs*는 일부 IRCAM·상업 목록에서 빠져 있지만, Colorado State University 프로그램과 Munch 음반 메타데이터에는 네 번째 부분으로 실려 있다. 빠른 템포는 어부의 동작을 직접 묘사한다기보다, 반복되는 리듬과 악기 교대가 장면의 운동을 짧게 압축하는 방식으로 들린다. 이 제목이 모든 판본의 공식 표제인지에 대해서는 서지 차이가 남아 있다.

V. *Chasseurs* · *Modéré*

다섯 번째 부분은 사냥꾼을 가리키며, 앞선 빠른 움직임에서 한 걸음 물러난다. DSE와 Flaminio가 제시한 편성에서 금관과 타악기는 행진적 윤곽을 만들 수 있고, 목관과 현은 그 사이에 더 가벼운 선을 놓는다. 프로그램 노트가 말하는 바로크적 종지와 헤미올라는 비평적 청취 언어이므로, 모든 마디에 적용되는 작곡가의 지시로 확대하지 않는다.

VI. Vendangeurs · Vif
여섯 번째 부분은 포도 수확 장면과 빠른 템포를 결합한다. 짧은 음형이 반복되고 관악기와 현악기가 빠르게 교대하면서 , 모음곡은 다시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돌아간다. 1957년 녹음의 트랙은 이 부분을 1분 남짓으로 제시하며, 전체 시간의 압축된 호흡을 확인하게 한다.

VII. Berger · Lent
느린 일곱 번째 부분은 목가적 장면을 가리키며, 여덟 부분 가운데 가장 긴 호흡을 마련한다. Flaminio와 ResMusica가 언급하는 목가적 피리와 바로크적 색채는 비평가가 들은 음향적 특징이다. IRCAM이 말하는 18 세기 주제와 André Campra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 부분은 민요를 그대로 복원한 장면이라기보다 옛 양식을 미요의 관현악 언어로 변형한 부분으로 설명하는 편이 안전하다.

VIII. Farandole · Vif

마지막 부분은 프로방스의 춤으로 널리 알려진 파랑돌을 제목으로 삼고 빠르게 마무리한다 . 금관과 타악기는
집단 춤의 리듬을 선명하게 하고, 현과 목관은 짧은 응답을 겹친다. Naxos의 2003년 녹음은 이 부분을 약 4 분으로 제시하며, 짧은 앞부분들이 쌓은 에너지가 마지막에 가장 긴 트랙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

프로방스 전통과 미요의 변형
IRCAM의 작곡가 자료는 모음곡의 주제가 18세기 음악에서 왔고,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이 Aix 출신 André Campra와 관계된다고 설명한다. 반면 일부 음반 해설과 비평은 옛 프로방스 민요를 직접 사용했다고 말한다. Collaer의 책은 검색 결과에서 실제 민요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 중세 프로방스와 거리 악사의 세계를
환기한다고 서술하지만 , 해당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직접 열지 못했다. 따라서 이 작품을 ‘프로방스 민요 모음 ’ 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Campra와 18세기 주제, 민속적 인상을 언급하는 자료가 공존한다고 적는다.

미요는 차용한 재료를 그대로 복제하기보다 개인적인 음악으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IRCAM workcourse에 소개된다. 이 자료는 Entretiens avec Claude Rostand와 자서전 등을
참고문헌으로 제시하지만 , 인터뷰 전체의 직접 인용은 아니다. 작품에서 들리는 폴리토널한 금관 배치, 헤미올라, 목가적 피리 효과는 Colorado State University, ResMusica, The Guardian의 프로그램 ·비평적 해석으로 구분한다.

출판과 판본의 주의점
IMSLP는 R. Deiss의 1937년 파리 판과 판번호 R.D. 7533, Salabert 재판 E.A.S. 15288을 Op. 152c 페이지에 올린다. nkoda는 Op. 152d의 Salabert 총보를 68쪽으로, CiNii는 c.1937년 66쪽의 pour orchestre로 기록한다. 이 서지 차이는 두 번호가 실제 출판 목록에서 혼용된 흔적일 수 있지만, 어느 레코드가

어느 편곡의 원본을 가리키는지 이번 자료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

대상 표기의 Op. 152d를 Op. 152c로 고쳐 쓰지는 않는다. 대신 1937년 베네치아 관현악판을 설명할 때 Op. 152c라는 DSE·IRCAM 표기를 병기하고, 1938년 파리 발레판을 Op. 152d로 구분한다. Op. 152a의 정확한 대상은 자료마다 달라 이번 글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Scaramouche를 이 작품의 원작 또는 발췌로 연결하는
직접 원문도 확인하지 못했다.

녹음과 수용
Naxos는 1957년 미요가 지휘한 Concert Arts Orchestra의 녹음을 여덟 부분과 템포, 트랙 시간으로 남긴다. Charles Munch와 Boston Symphony Orchestra의 음반 메타데이터도 여덟 제목과 시간을 제시하지만
작품번호를 Op. 152b로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Munch 음반에서는 제목과 시간만 사용한다.

Jean-Claude Casadesus와 Orchestre National de Lille의 2003년 녹음은 Naxos 8.557287에 실렸고, 총시간은 15분 14초다. The Guardian, Classical-Music, ResMusica는 이 음반의 활기, 정제, Campra와 프로방스적 색채를 각기 다르게 평가한다. Darius Milhaud 사이트는 Munch, Järvi, Plasson, Bender, Baudo 의 연주를 비교하며 특정 지휘자의 템포와 음향을 선호하지만 , 그 판단은 작성자의 비평으로 한정해야 한다.

2017년 Colorado State University 공연 프로그램은 이 작품을 Op. 152d, 여덟 부분으로 올렸다. 이런 현대 공연과 음반은 두 편곡이 현재도 독립적으로 유통된다는 사실을 보여 주지만, 1937년 베네치아의 정확한 공연 장소나 1938년 발레의 안무 정보를 대신하지 않는다.

주요 자료

IRCAM, Suite provençale, Op. 152c
IRCAM, Suite provençale, Op. 152d
Durand-Salabert-Eschig, Darius Milhaud catalogue
Flaminio Online, Suite provençale
Musicologie, Milhaud biography
IMSLP, Suite provençale, Op. 152c
Naxos, Milhaud catalogue
Naxos 8.557287 booklet
University of Florida dissertation
Colorado State University program
Darius Milhaud site
The Guardian review
ResMusica review
MusicWeb International, Munch/BSO review

- nkoda, Salabert catalogue record
- CiNii Books catalogue
- Fondazione Giorgio Cini, 1937 Venice festival archive

Saudades do Brasil

정보

개요
곡명: Saudades do Brasil, Op. 67 / Op. 67b
작곡가: Darius Milhaud (1892–1974)
장르: 피아노 독주 모음곡 및 관현악 전사판
작곡 시기: 1920–1921년
피아노판 초연: 1920년 11월, Paris Galerie Montaigne의 Concert des Six
관현악판 공연 기록: 1921년 Paris의 Loïe Fuller 공연, V. Golschmann 지휘
초판: 피아노판 Op. 67은 1922년 E. Demets, 관현악판 Op. 67b는 1921년 출판 기록과 1923년 Max Eschig 총보로 전함

IMSLP: Saudades do Brasil, Op. 67 · Op. 67b 관현악판

Wikipedia: Saudades do Brasil

Darius Milhaud의 Saudades do Brasil은 브라질 체류 뒤에 쓴 12개의 춤곡을 피아노 독주 모음곡으로 묶은 작품이며, 작곡가가 이를 관현악으로 전사한 Op. 67b도 남아 있다. 피아노판은 Sorocaba에서 Paysandu까지 열두 곡을 이 순서로 진행하고, 관현악판에는 이 목록 앞에 짧은 Ouverture가 추가된다. 따라서 이 글은
원래의 12곡과 관현악판의 추가 서주를 구분해 다룬다.

출판 정보와 판본

IRCAM과 Durand–Salabert–Eschig 카탈로그는 작품을 1920–1921년의 Op. 67과 Op. 67b로 제시한다. PTNA 자료는 1920년 Copenhagen에서 완성되었다고 적고, UNESP 연구는 Milhaud가 브라질에서 돌아온
뒤 1920년 하반기에 작곡했다고 설명한다. 이 자료들은 작곡의 큰 시기에는 합치하지만 정확한 완료 월일에는 차이가 있다.

피아노 원곡 Op. 67은 1922년 Paris의 E. Demets에서 처음 출판되었고 , IMSLP가 연결한 초판 스캔에는
열두 곡의 악보와 표제가 남아 있다. 관현악 전사판은 Op. 67b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 1921년 출판 기록과 1923년 Max Eschig 총보가 함께 전해진다. 일부 공연 ·음반 카탈로그는 관현악판도 Op. 67로 줄여 쓰므로, 작품번호와 판본을 함께 적어 두 버전을 구별한다. 공개 카탈로그에서는 별도의 관현악 편곡자를 제시하지 않고 Milhaud의 전사판으로 다룬다.

소요 시간

피아노판은 약 20분, 관현악판은 약 22분이다. IRCAM은 각각 19분 50초와 22분으로 안내하고, Alexandre Tharaud의 1995년 Naxos 피아노 녹음은 20분을 조금 넘는다. Darius Milhaud가 지휘한 1957년 관현악 녹음에서도 *Saudades do Brasil*에 해당하는 트랙은 약 22분으로 묶인다. 연주자의 템포와 관현악판의 *Ouverture*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편성

피아노판은 피아노 독주다. 관현악판의 DSE 카탈로그 표기는 2.2.2.2 - 2.2.2.0 - timb, 2perc - cordes이며, 이를 풀면 다음과 같다.

- 목관 :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 금관 : 호른 2, 트럼펫 2, 트롬본 2
- 타악기 : 팀파니, 타악기 2명
- 현악 : 현악 합주

IRCAM도 이와 같은 대관현악 편성을 제시한다. Fremeaux의 음반 해설은 호른을 따로 적지 않고 목관, 트럼펫, 트롬본, 팀파니와 타악기, 현악을 열거한다. DSE와 IRCAM의 수치 표기에는 호른 2가 들어가므로, 호른의 포함 여부는 판본에 따라 달라진다. 특정 타악기의 종류나 무대 밖 배치는 공개 자료가 일관되게 제시하지 않는다.

12개 춤곡의 순서와 표제

PTNA 카탈로그와 여러 악보·음반 자료는 열두 곡을 모두 2/4박자의 춤곡으로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템포 표기를 제시한다. 표제 철자와 악센트는 카탈로그마다 달라질 수 있어, 아래에는 널리 쓰이는 지명 표기를 적었다.

순서	표제	**PTNA**에 실린 **tempo**
1	*Sorocaba*	Modéré
2	*Botafogo*	Doucement
3	*Leme*	A l’aise
4	*Copacabana*	Calme
5	*Ipanema*	Nerveux
6	*Gávea*	Vivement
7	*Corcovado*	Tranquille
8	*Tijuca*	Triste
9	*Sumaré*	Léger
10	*Paineiras*	Souple
11	*Laranjeiras*	Alerte
12	*Paysandu*	Expressif

이 표는 PTNA의 카탈로그 표기를 요약한 것이며, 개별 곡의 조성과 마디 단위 형식을 확정하는 비평판 목록은 아니다. 실제 자료에는 Sorocoba, Botofago, Gavea, Sumare, Paineras, Larenjeiras, Paysandù처럼 악센트와 철자가 다른 입력도 나타난다.

관현악판의 Ouverture

관현악판에는 피아노 원곡의 열두 곡에 앞서 짧은 Ouverture가 붙는다. 이 서주는 원래 피아노판의 열두 표제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현악 프로그램을 13개 단위로 세는 근거가 된다. 1921년 Loïe Fuller 공연을
설명하는 자료도 이 관현악판을 따로 기록하므로 , 피아노판의 12곡과 관현악판의 12곡에 서주를 더한 구성을 구별해야 한다.

리듬과 다성성

Fremeaux 해설과 UNESP 연구는 이 모음곡을 tango brasileiro, maxixe, samba 등 브라질 춤 문화와
연결해 설명한다. 이 용어들은 서로 같은 장르를 뜻하지 않으며, 아르헨티나 tango와 브라질의 tango brasileiro를 구분해야 한다. Musical Geography의 분석은 빠른 2/4박자, 싱코페이션 , 반복 오스티나토 , 서로 다른 조의 결합을 작품 전반의 음악적 특징으로 다룬다.

IRCAM의 작곡가 워크코스는 Le Bœuf sur le toit에 실제 브라질 선율이 다수 인용된 것과 달리, Saudades do Brasil의 주제는 Milhaud가 현지 음악을 들은 방식을 바탕으로 새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열두 곡을 특정 민요를 그대로 옮긴 모음으로 분류하기보다는 , 브라질에서 얻은 리듬 경험과 다성적
작곡어법을 결합한 창작 모음으로 보는 편이 자료에 부합한다. 곡별 조성의 완전한 권위 목록은 자료마다
제시되지 않으며, 자료들은 전곡을 하나의 조성표로 정리하지 않는다.

브라질 체류와 창작 맥락

Milhaud는 Paul Claudel과 함께 1917년 2월부터 1918년 11월까지 브라질에 머물렀다. Fremeaux booklet 은 당시 Rio de Janeiro에서 유행한 행렬과 춤 문화를 설명하고, Milhaud가 1920년 Revue Musicale에 브라질에 관한 글을 썼다고 전한다. 귀환 후 작곡 시기와 작품 제목에 남은 지명은 이 체류 경험과 연결되지만 , 각 곡의 표제가 특정 민요나 한 장면을 직접 기록한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열두 표제는 Rio de Janeiro와 주변 장소의 이름을 사용한다. 다만 Sorocaba처럼 Rio 시내 행정구역으로 보기 어려운 지명도 있어, 자료가 확정하는 범위는 Rio de Janeiro와 주변 장소를 가리키는 표제라는 정도다.
표제는 장소명을 사용해 각 곡의 순서를 구분하며, 음악의 장르와 리듬을 단일 지리 분류로 고정하지 않는다.

초연과 무대화

피아노판의 창작 ·초연 기록은 1920년 11월 Paris Galerie Montaigne에서 열린 Concert des Six와 연결된다 . IRCAM, IMSLP, PTNA는 연주자를 Nininha Velloso Guerra로 적지만, 다른 자료와 기존 목록에는 Maria Virgínia Velloso Guerra라는 이름도 나타난다. 두 표기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지는 이 자료들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관현악판은 1921년 Paris의 Loïe Fuller 공연에서 V. Golschmann 또는 Vladimir Golschmann이 지휘한 것으로 IRCAM과 DSE 카탈로그에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은 관현악판이 무대 공연과 연결되었음을 보여

주지만, 정확한 날짜와 장소, 열두 곡 전체인지 발췌인지, Ouverture가 포함되었는지까지는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1921년 기록은 관현악판의 중요한 공연 시점을 보여 주지만, 완전한 관현악 전곡의 초연일로 특정되지는 않는다.

Rambert Archive는 Frederick Ashton 안무의 *Selection from Saudades do Brésil (1920–1921)*을 1930년 6월 23일 London Lyric Hammersmith에서 초연한 것으로 기록한다. Marie Rambert Dancers가 참여했고 생피아노와 한 명의 남성 무용수를 사용한 선곡 무대였다. 이 공연은 12곡 전곡의 초연이 아니라, 피아노 모음곡이 발레 ·무대용 발췌로 옮겨진 사례다.

녹음과 수용

Darius Milhaud는 1928년 11월과 1930년 1월 Paris에서 피아노로 Sorocaba, Sumaré, Corcovado, Ipanema를 녹음했다. BnF 카탈로그는 이 날짜를 기록하며, 1935년 Marguerite Long의 Paysandu 녹음도 별도로 남긴다. Fremeaux 자료는 Jacques Février의 1957년 녹음과 1929년 Le Trigentuor Lyonnais·Charles Strony의 관현악 발췌 녹음을 더해, 피아노판과 관현악판이 초기부터 서로 다른 매체로 유통되었음을 보여 준다.

현대 피아노판의 한 기록으로는 Alexandre Tharaud의 1995년 Naxos 녹음이 있으며, 12곡을 한 모음으로 수록한다. DSE와 Naxos 자료에는 Milhaud가 지휘한 1957년 Concert Arts Orchestra의 관현악판, Capella Cracoviensis와 Karl-Anton Rickenbacher의 관현악 전곡, Leonard Bernstein·ONF와 Gennady Rozhdestvensky의 발췌 녹음도 함께 열거된다. 각 음반은 피아노 원곡, 관현악 전사, 발췌곡 가운데 서로
다른 범위를 보여 주며, 음반별 판본과 수록 범위의 차이도 함께 드러낸다.

2012년 BBC Music Magazine의 Nicholas Williams는 Tharaud 음반을 비평하면서 이 모음곡이 지닌
이국적으로 들리는 면을 언급했다. 이는 한 비평가의 청취 반응이며, Milhaud가 특정 민요를 직접 인용했다는 사실이나 작품의 장르를 대신하지 않는다. 반대로 1920년대 초연과 1930년대 무대 사용, Milhaud 자신의 초기 녹음은 작품이 피아노 소품집을 넘어 관현악과 발레의 문맥으로 옮겨 간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주요 자료

IRCAM, 피아노판 작품 항목: 1920–1921년, Op. 67, 피아노판, 1920년 11월 Paris 초연 기록과 12
곡, 소요 시간.

IRCAM, 관현악판 작품 항목: Op. 67b, 관현악 편성, 약 22분, 1921년 Loïe Fuller 공연과
Golschmann.

IRCAM, Darius Milhaud 워크코스: 브라질 체류, 다성성, Saudades do Brasil의 창작 선율에 관한
설명.

Durand–Salabert–Eschig 카탈로그: Op. 67b의 출판 ·편성 ·공연 기록과 음반 목록.

Fremeaux, Darius Milhaud booklet: 브라질 체류와 춤 문화, 12곡, 초기 녹음과 관현악 발췌.

UNESP, Faces da História 논문: maxixe와 1920년대 Paris의 브라질 리듬 수용 맥락.

UNESP 학위논문: 1917–1918년 브라질 체류와 귀환 후 작곡 연대.

BnF, 역사 녹음 카탈로그: Milhaud, Marguerite Long의 초기 녹음 날짜와 곡명.

Rambert Archive, 공연 데이터베이스 : 1930년 Ashton 안무 발췌 무대의 범위와 연주 조건.

PTNA Piano Music Encyclopedia: 12개 표제, 2/4박자, tempo와 헌정 표기. Naxos, 8.553443: Alexandre Tharaud의 1995년 피아노 녹음과 트랙 정보. Naxos, 9.80448: Milhaud 지휘 관현악판과 수록 범위.
Classical Music, Tharaud 음반 비평: 2012년 Nicholas Williams의 수용 ·청취 평가.